

평양의 역사유적을 찾아서

고려시기의 강동옛읍성

우리는 립금석 평양시민체육공원... 평양의 역사유적을 찾아서



성의 가운데부분

성의 바깥부분

성의 가운데부분... 성의 바깥부분

성도 모르고 용감성을 발휘했던 우리 선조들의 애국의 마음이 어려웠다.

강동옛읍성은 고려시기를 연구하는데서 큰 역할을 하는 대표적인 성들중의 하나로서 귀중한 역사유적이다.

호평받는 안경상점

평양의 문수지구에 훌륭히 일떠선 류경안과종합병원의 안경상점은 늘 손님들로 흥성한다.

상점에서는 손님들에 대한 안경봉사를 먼저 정확한 안경도수교정봉사로부터 시작한다.



장수는 운동량만이 아니라 운동종목에도 관계된다. 걷기 하루에 4 000보 걷는 사람에 비해 8 000보 걷는 사람은 사망위험률이 51% 낮다는 것이 최근 연구를 통해 밝혀졌다.

건강과 운동중목... 걷기 하루에 4 000보 걷는 사람에 비해 8 000보 걷는 사람은 사망위험률이 51% 낮다는 것이 최근 연구를 통해 밝혀졌다.

달리기를 하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사망위험률이 27% 낮다는 연구결과가 발표되었다.

달리기를 하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사망위험률이 27% 낮다는 연구결과가 발표되었다.

소고기밤은행썸

봄계절에 사람들은 충분한 영양을 섭취하면서 몸보신을 해야 한다. 영양가가 높은 소고기밤은행썸은 보양음식으로 손꼽힌다.

밤은 밤을 보기를 하자. 먼저 소고기 1kg일 때 무우 100g, 밤 30g, 은행 30g, 파 50g, 간장 5g, 참기름 5g, 다진 마늘 10g, 실고추 0.5g, 후추가루 1g, 소금 6g을 준비한다.



소고기가 익으면 건져 간장, 참기름, 다진 마늘, 후추가루, 소금을 두어 양념한다. 탕그릇에 양념한 소고기를 담고 은행, 밤을 넣은 다음 중탕한다.

소고기가 익으면 건져 간장, 참기름, 다진 마늘, 후추가루, 소금을 두어 양념한다. 탕그릇에 양념한 소고기를 담고 은행, 밤을 넣은 다음 중탕한다.

소고기는 토막내어 냄비에서 기름을 걷어내면서 삶는다. 여기에 무우를 큼직하게 썰어넣고 소고기가 무를 때까지 끓인다. 은행은 닭아서 껍질을 벗긴다.

주소 : 평양 통일신보사

(해외동포 여러분의 서면연락주소 : 조선평양 국제우편국사서함 제150호)

공훈체육인 김평화는 지난해 진행된 태양절체육대항대회에서 1부류 축구경기에서 2020-2021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여자 1부류 축구선수로서 4.25팀이 각각 1위를 하는데 크게 기여한 재능있는 축구선수이다.



김평화는 2017년과 2021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10대 최우수선수로서 선정되었다.

김평화는 2017년과 2021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10대 최우수선수로서 선정되었다.

김평화는 2017년과 2021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10대 최우수선수로서 선정되었다.

우리 선조들이 입었던 전통적인 봄철옷으로는 저고리와 바지, 치마, 두루마기 등을 꼽을 수 있다. 봄철옷들은 겨울의 추위가 깨닫기 가셔지지 않고 쌀쌀한 기운이 감도는 봄계절에 맞게 모두 겹으로 하거나 솜을 얇게 두고 누벼서 만들었다.



우리 선조들이 입었던 전통적인 봄철옷으로는 저고리와 바지, 치마, 두루마기 등을 꼽을 수 있다.

우리 선조들이 입었던 전통적인 봄철옷으로는 저고리와 바지, 치마, 두루마기 등을 꼽을 수 있다.

우리 선조들이 입었던 전통적인 봄철옷으로는 저고리와 바지, 치마, 두루마기 등을 꼽을 수 있다.

국가비물질문화유산

옷칠공예

국가비물질문화유산으로 등록된 옷칠공예는 옷을 칠하여 기물이나 가구를 아름답게 만드는 공예의 한 종류이다.

옷칠공예는 그 장식법이 매우 다양하다. 대표적으로 자개박이장식, 금속판으로 무늬를 박는 금속박이장식, 옷칠그림장식, 옷으로 도드라지게 무늬장식을 하는 옷칠조각장식, 닭알껍질 또는 여러가지 풀,



국가비물질문화유산으로 등록된 옷칠공예는 옷을 칠하여 기물이나 가구를 아름답게 만드는 공예의 한 종류이다.



국가비물질문화유산으로 등록된 옷칠공예는 옷을 칠하여 기물이나 가구를 아름답게 만드는 공예의 한 종류이다.

사화 돌날가리 (1)

그리 멀지 않은 옛날 솔개동이라는 작은 마을에 부지런하고 마음씨 착한 농민이 살고 있었다. 그는 힘겨운 장사여서 무슨 일이든 척척 해냈다. 그러나 입에 풀썩조차 할 수 없으리만치 굶주리고 힘썼었다.

그리 멀지 않은 옛날 솔개동이라는 작은 마을에 부지런하고 마음씨 착한 농민이 살고 있었다. 그는 힘겨운 장사여서 무슨 일이든 척척 해냈다. 그러나 입에 풀썩조차 할 수 없으리만치 굶주리고 힘썼었다.

5월의 절기와 민속

립화와 소만은 24절기 가운데서 5월에 드는 절기로서 립하는 여름이 시작되는 것을, 소만은 여름기운이 점점 깊어가는 때라는 것을 이르는 말이다.

이때에 조는 두벌김매기를 하였다. 우리 선조들은 식물들이 자라는데 적합한 이 시기에 산나물을 뜯어 김치, 국 등을 만들어 먹었다.

이때에 조는 두벌김매기를 하였다. 우리 선조들은 식물들이 자라는데 적합한 이 시기에 산나물을 뜯어 김치, 국 등을 만들어 먹었다.

둘의 아버지가 불안한 기색을 애써 감추며 말하는데 황지주는 《흠, 그런 말은 말게.》 하고 손을 댄 내저었다. 그런 다음 거적문을 열어 보고는 《이게 말이 아니군. 이렇게 군색하면 나더러 도와달라고 하지, 예익 참!》 하고 나무랐다.

황지주는 《그건 안 되겠습니까.》 하고 똑 잘라 말했다. 육십쟁이 지주가 제 날가리를 주고 그대신 보잘것없는 돌날가리를 달라고 할 때에는 꼭 무슨 좋지 않은 일이 있으리라고 생각했던 것이다.

황지주는 《그건 안 되겠습니까.》 하고 똑 잘라 말했다. 육십쟁이 지주가 제 날가리를 주고 그대신 보잘것없는 돌날가리를 달라고 할 때에는 꼭 무슨 좋지 않은 일이 있으리라고 생각했던 것이다.



황지주는 《그건 안 되겠습니까.》 하고 똑 잘라 말했다. 육십쟁이 지주가 제 날가리를 주고 그대신 보잘것없는 돌날가리를 달라고 할 때에는 꼭 무슨 좋지 않은 일이 있으리라고 생각했던 것이다.

황지주는 《그건 안 되겠습니까.》 하고 똑 잘라 말했다. 육십쟁이 지주가 제 날가리를 주고 그대신 보잘것없는 돌날가리를 달라고 할 때에는 꼭 무슨 좋지 않은 일이 있으리라고 생각했던 것이다.

황지주는 《그건 안 되겠습니까.》 하고 똑 잘라 말했다. 육십쟁이 지주가 제 날가리를 주고 그대신 보잘것없는 돌날가리를 달라고 할 때에는 꼭 무슨 좋지 않은 일이 있으리라고 생각했던 것이다.